



송혜교 '홀릭'

상대역 살려주는 케미 탁월... 방부제 미모로 20년간 정상 지켜
'가을동화' '올인' '풀하우스' 이어 '태양의 후예'로 또다시 대박

“홀려본 적 있어요?”(김모연) “있죠. 알텐데...”(유시진)
안방극장을 강타한 KBS 2TV 수목극 '태양의 후예'의 남녀 주인공이 주고 받은 이 대화는 강모연을 넘어 배우 송혜교(34)를 설명하는 적절한 문답이다.
1996년 데뷔한 이래 지난 20년 정상을 지켜온 원조 한류스타 송혜교가 '태양의 후예'를 통해 또다시 존재감을 과시하며 대박을 쳤다. 타고난 미모와 청순한 매력에, 상대역이 누구든 환상적인 케미를 내는 몰처럼 유연한 아우라가 돋보이는 송혜교는 '태양의 후예'에서도 상대역인 송중기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능력을 발휘하며 왜 송혜교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똥개 안기는 '방부제 미모'의 파워...어떤 남자 배우와도 어울려=14살에 교복모델로 발탁돼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은 송혜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예뻐다. 특히 키 161cm에 인형같은 얼굴은 어떤 남자 배우와도 어울리는 힘을 발휘했다.
무엇보다 그가 선전적으로 장착한, 소녀같은 분위기와 깨끗하고 청아한 이미지는 각양각색의 남자 배우들을 만나 때면 완벽하고도 부드러운 하모니를 냈다. 송승헌, 원빈, 조인성 등 꽃미남도, 몸짱 비도, 시크한 강동원, 한빈, 이병헌도. 코믹한 이미지의 차태현, 건장한 유지태도 모두 송혜교와 연기할 때는 100% 이해 가능하고 공감 가능한 케미를 발휘했다. 이들 남자 배우들이 상당수의 작품에서 여배우와 불협화음을 냈던 것을 생각하면 송혜교의 저력이 확인된다.
송혜교는 어떤 상대를 만나도 언제나 그림이 됐고, 설득력있는 멜로를 만들어냈다.
'태양의 후예'가 '기승전 송중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바로 송혜교가 송중기의 상대역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송중기의 상대역이 송혜교가 아니었다면 '태양의 후예'는 지금과 같은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송중기는 송혜교보다 3살 연하다.
◇'가을동화' '올인' '풀하우스' 그리고 '태후'...원조 한류스타의 또 하나의 히트작=대부분의 한류스타는 아시아를 뒤흔든 작품이 하나에 머물거나 많아야 두 세 작품이다. 그런데 송혜교는 많다.

'순풍산부인과'(1998~2000)의 깜찍한 오혜교는 2000년 '가을동화'로 원조 한류스타로 등극한다. 송승헌과 원빈이 동시에 송혜교에게 빠져드는 게 너무나 이해 가능했던 '가을동화'는 '겨울연가'가 터지기 전 한류 멜로 드라마의 성공작으로 많은 아시아 팬들을 사로잡았다.
이후 이병헌과 호흡을 맞춘 '올인'(2003), 비와 호흡을 맞춘 '풀하우스'(2004)는 '가을동화'를 훌쩍 뛰어넘는 인기를 누렸다. '올인'은 일본 열도를, '풀하우스'는 중화권을 뒤흔들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송혜교는 '겨울연가' 최지우나 '별에서 온 그대' 전지현 이전에 이미 아시아권에서 두터운 팬층을 확보했고 무엇보다 이를 계속 이어오는 데 성공하면서 아시아 광고 시장에서 파워를 발휘하고 있다.
그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그는 왕자웨이(王家衛·왕가위) 감독의 '일대중사', 우위선(吳宇森·오우삼) 감독의 '태평문' 등 중국 주류 영화의 주연으로 발탁되며, 중국에 진출하는 다른 배우들과 격을 달리했다.
◇서른넷 송혜교가 표현하는 뜨겁고 새침한 강모연='태양의 후예'의 강모연은 송혜교가 지금까지 보여준 상큼, 발랄한 매력과 청초함에 더해 가슴 뜨거운 고민을 안고 사는 30대 중반 워킹우먼의 모습을 구현한다. 역대 송혜교가 연기한 캐릭터 중 가장 입체적인 캐릭터다.
드라마는 지난 10일 방송된 6회에서 지진과 함께 강모연 캐릭터의 변화를 시작했고, 이런저런 고민에 '머리가 복잡했던' 강모연이 방황과 '밀당'을 접고 앞으로 직진할 것을 예고해 7회부터를 기대하게 했다.
웃는 모습 못지않게 새침하게 눈 흘기는 모습과 유사시 놀라울 정도로 대찬 모습이 아름다운 강모연의 캐릭터는 생사가 오가는 재난 현장에서 이제 번민을 끝내고 단단히 성숙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년 정상의 위치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내며 조종히 감성과 연기력을 키워온 송혜교는 '태양의 후예'를 통해 서른넷 송혜교가 보여줄 수 있는 오늘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매력적으로 그려낸다. /연합뉴스



리쌍 길, '쇼미더머니 5'로 2년 만에 복귀

래퍼 매드클라운과 프로듀서로 활약

합합듀오 리쌍의 길(본명 김성준·39)이 2년 만에 방송에 복귀한다.
CJ E&M은 길이 오는 5월 첫 방송하는 엠넷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5'에서 래퍼 매드클라운과 한팀이 돼 프로듀서로 활약한다고 13일 밝혔다.
길은 지난 2014년 4월 음주 운전으로 MBC TV '무한도전'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수개월간의 자숙 끝에 공연 무대에 오르고 지난해 솔로 앨범도 냈지만 방송 활동은 하지 않았다.
길은 "1996년 데뷔해 히피패밀리부터 리쌍까지 20년째 합합계에서 나만의 길을 걸은 만큼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며 "사고뭉치 길에게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준 '쇼미더머니' 측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래퍼 선발 기준에 대해 "지금 유행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멋있는 래퍼를 찾고 싶다"며 "젊은 래퍼들이 각자의 스타일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즌에는 길과 매드클라운을 비롯해 자이언티-쿠시, 사이먼도미닉-그레이, 도끼-더과이어 등 4팀의 프로듀서팀이 실력 있는 래퍼 선발에 나선다. MC는 '쇼미더머니 3'부터 활약한 래퍼 김진표가 맡는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4일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토크쇼A	00 KBS 뉴스광장 50 인간극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00 모닝와이드 1~2부 30 KBC 모닝와이드
7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20 닥터365 25 TV블로그 골지락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중계방송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트35	00 제20대 총선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40 나는 몸신이다		00 월화드라마 (우림학교)(재)		00 닥터 365 05 세상발전 유래기(재)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KBC 열린토론회
1	1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우리 사는 세상(재)	00 출발드림팀 2(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TV블로그 골지락
2	30 직언직설	00 명인(재) 50 콘서트 필	00 KBS 뉴스타임 10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2.0	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3		40 야생일기(재) 50 바론말 고우말 55 튜튼생활체조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채상 위키	00 MBC 뉴스 10 똑똑 키즈쿨 55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캐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세계인 스페셜 20 취재파일 K(재)	00 TV유치원 30 아육경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40 동물의 세계(재)	25 MBC 일일특기회 (아름다운 당신)(재)	00 민영방송 공동기획 풀은 생명이야 30 안연 자두야
5	40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애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특 30 SBS 뉴스플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닥터 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리라(재)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리라(재)
7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골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0 TV 주치의 닥터 지·바·고	25 우리집 골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기회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특별기획 (베이비시터)	00 월화 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00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11	00 풍문으로 들었소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0 동상이몽 관찰이 관찰야
12	40 특별기획 신의 한수를 찾아라	20 해외걸작드라마 (닥터 후 시즌8)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3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성공시대 가는 한국인 (자동차정비소의 백가이버, 자동차정비 박병일)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박연경의 비트볼고기조림과 물동길잡이)	14:30 부릉부릉 부름미즈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피터 래빗 15:30 꼬마기사 마이크 15:40 으랏차차 아이큐 16:00 캐니멀(재) 16:30 코코코 다코 16:45 덩동덩 유치원 1~3(재) 17:30 뽀롱뽀롱 보로로(재) 17:45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재)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다크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셀람 에티오피아) 21:30 한국기행 (국수 기행) 21:50 EBS 다크 프라임 (천국의 아이들 1부 나디아의 산) 22:45 달라졌어요 23:35 시대공간 24:05 지식채널 e 24:10 EBS 인문학 특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4일(음 2월 6일 乙未)	
子	48년생 지나 간 흔적을 잘 살펴보면 힌트를 얻게 되리라. 60년생 능력에 맞는 계획과 방안이 필요하다. 72년생 이렇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하다. 84년생 생산적인 관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55, 80	午	42년생 급작스러운 단절이나 변화가 보인다. 54년생 표면의 현상을 역면 그대로 믿으면 곤란하다. 66년생 주의한다면 외의의 손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78년생 만전을 기한 후에 임하는 것이 낫겠다. 행운의 숫자 : 45, 64
丑	49년생 특별한 신경 쓰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61년생 나가는 쉬우나 돌아오는 데는 더딜 것이다. 73년생 실호적인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쾌거가 있다. 85년생 매우 어색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81, 05	未	43년생 낡은 것은 버리고 새것에 대한 노력을 배가함이 적절하다. 55년생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67년생 객관적인 판단과 냉철한 시각이 절실한 때이다. 79년생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진다. 행운의 숫자 : 71, 46
寅	50년생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흥왕의 기운을 함께 나눌 것이다. 62년생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찾아내야겠다. 74년생 집착을 버리고 진용을 정비하는 것이 이익이다. 86년생 주도면밀한 인식이 명쾌한 판단으로 이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7, 56	申	44년생 체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느니라. 56년생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이가 생긴다. 68년생 범위를 벗어나면 서로 곤란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라. 80년생 누락이나 중복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한다. 행운의 숫자 : 12, 73
卯	51년생 탈출구를 모색하더라도 쉽지않은 암을 것이니 각오하고 임하라. 63년생 매끄럽지 못하면 반드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75년생 생산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형상이다. 87년생 과정에 충실하라. 행운의 숫자 : 16, 28	酉	45년생 경쟁자와 동반하는 면모이다. 57년생 취약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다. 69년생 하찮은 것에서 비롯된 불행함이 보인다. 81년생 좋은 일이 있는 과정에서 마도 많이 끼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54, 86
辰	40년생 취약점을 보완한다면 따 놓은 당상이다. 52년생 망각하고 있지 않나 살펴볼 일이다. 64년생 절제로 인한 부가적 효과가 상당하다. 76년생 수월해질 것이다. 88년생 방치하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행운의 숫자 : 29, 17	戌	46년생 양보하지 않는다면 상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자. 58년생 더 좋은 조건으로 변경되는 반세르다. 70년생 학습과대하여 왔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82년생 연쇄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을 일라. 행운의 숫자 : 96, 92
巳	41년생 이전보다 훨씬 좋은 여건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53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뒤따라 생기기 않을 것이다. 65년생 변수는 없다. 77년생 사소한 원인으로 차치하지 마라. 89년생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18, 41	亥	47년생 중요한 일을 단행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 날이다. 59년생 사소하다고 여겨왔던 일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71년생 함께 하면서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낫다. 83년생 순리대로 풀어나간다면 결과가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36, 8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